



D-28 금메달 기대주 ② 체조 김지훈

광주여대 기보배 2관왕 명중

힘있는 연기... '무관의 한' 풍다

키 173cm...타국 선수들 보다 10cm정도 커

절도있는 동작으로 독점에 절대적 유리

"큰 국제대회 노메달 설움 올림픽서 만회"



베이징올림픽 남자 체조 철봉에 도전하는 국내 철봉 1인자 김지훈(24.서울시청). 사진은 지난 4월 29일 서울 태릉선수촌에서 훈련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 감독은 "체조는 단체전 예선 첫날 성적이 가장 중요하다. 이 성적을 바탕으로 개인종합, 개인 종목별 결승 진출자가 가려진다. 그래서 지훈이에게 첫 날 모든 집중력을 퍼붓도록 조언했다. 부담만 덜어준 좋은 성적을 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베이징올림픽 남자 체조 철봉에 도전하는 김지훈(24.서울시청)이 올림픽에서 국제무대 첫 금메달에 도전한다.

김지훈은 국내 철봉 1인자다. 키 173cm, 몸무게 65kg의 날렵한 그가 철봉을 잡고 공중에서 힘차게 도는 걸 지켜보면 웅장하면서 가슴이 탁 트인 느낌을 받는다.

그는 평행봉에서 금메달이 기대되는 양태영(28) 유원철(24) 이상 포스코건설) 보다 6~10cm가 크다.

다른 나라 철봉 경쟁자들과 비교해도 10cm 가량 길다. 철봉에서 호리호리한 몸매는 독점에 큰 도움을 준다. 원시력을 이용해 힘있게 원을 그릴 수 있고 큼직큼직하면서 절도 있는 동작은 채점하는 심판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심어준다. 철봉에서는 비행 동작이 적어도 별점을 받는다.

그래서 처음 나서는 이번 베이징올림픽에서 그간 한을 떨쳐버리겠다는 각오가 대단하다.

2004년 전국체전 철봉에서 1위에 오르며 뜨기 시작한 김지훈은 2005 대학, 일반체조선수권대회 철봉에서도 우승했고 2006 도하 아시아게임에서는 동메달을 땀다.

크고 작은 실수 탓에 국제대회에서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한 그가 본격적으로 자신감을 터뜨린 대회가 바로 지난해 12월 베이징에서 열린 프레올림픽이다.

김지훈은 이번 올림픽에서 맞붙을 세계 강호가 대거 참가한 이 대회 철봉에서 15.425점으로 마침내 정상에 올랐다. 이어 지난 3월 중국 텐진에서 열린 국제체조연맹(FIG) 월드컵에서 은메달을 따내고 상승세를 이어갔다.

김지훈은 "오직 독일의 파비앙 함뷔텐만 라이벌로 삼고 훈련에 임하고 있다"고 말한다.

함뷔텐은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다. 3월 월드컵 금메달리스트 주카이(중국)와 일본의 호시 유스케 등도 호시탐탐 금메달을 노리겠지만 김지훈은 이들은 실력으로 쉽게 제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하다.

그를 지도하는 이준형 서울시청 감독은 "함뷔텐의 스타트 점수가 7.1~7.2점, 중국 선수들이 7.1점 정도라면 지훈이는 7.2점으로 최상급이다. 뒤집 게 없다"고 평한다. 체조 총점은 스타트 점수와 기술점수의 합계로 이뤄진다.

이어 "지훈이가 체조선수로는 덩치가 커 링과 평행봉에서는 아직 부족하지만 철봉과 안마는 뛰어나다. 특히 철봉 동작은 크고 예쁘다"고 덧붙였다.

세계 대학양궁선수권 단체·개인 휩쓸어

단체 8강전서 23점 썩 세계신기록 수립



기보배(광주여대 3년·사진)가 2008세계 대학양궁선수권대회에서 개인·단체전을 석권하며 베이징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탈락의 아픔을 씻었다.

기보배는 10일 대만 타이난 장영대학은 동장에서 열린 대회 여자대학부 단체전에서 이현주(순천대)·장혜진(계명대)과 조를 이뤄 8강전에서 23점을 썩 세계신기록을 작성하며 결승에 올랐다.

8강전에서 세계신기록을 작성하며 기세를 올린 기보배·이현주·장혜진은 결승전에서 러시아를 6점차로 가볍게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또 기보배는 이날 개인전에서 111점을 명중시켜 팀 동료 이현주를 6점차로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해 개인·단체전 2관왕에

오르는 기쁨을 토했다. 광주여대 주장을 맡고 있는 기보배는 안양 성문고등학교 출신으로 2004~2005년 주니어 국가대표를 지내는 등 주목을 받았으나 고교때 슬럼프를 겪다 광주여대에 입학,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또한 기보배는 베이징 올림픽양궁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에서 8명선발에 10위를 해 아쉽게 탈락했으나 집중력이 강하고 유연성이 좋아 양궁계 대들보로 평가받고 있다.

김성은(35·광주여대 감독) 대표팀 감독은 "10일동안 광주여대에서 합숙을 하면서 단체전 위주로 연습을 한 것이 주요했다"며 "선수들 간의 호흡이 완벽하게 맞아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대회 단체전은 총 24발을 썩 10점, 9점 파넬(골드)에 맞으면 1점, 아니면 0점으로 처리하는 아카데미라운드 방식으로, 개인전은 12발(120점 만점)을 썩 토너먼트로 치르는 올림픽라운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발사거리는 둘 다 70m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축구협회장 후임 누구?

정몽준 現회장 내년 1월 임기 끝

이흥구 前총리·이회택씨 등 거론



이흥구 前총리 이회택씨

지난 1993년 제47대 대한축구협회 수장으로 취임해 내년 1월로 16년 임기를 끝내게 될 정몽준 회장이 한나라당 최고위원에 당선돼 정치활동 '유인'을 선언해 후계구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회장은 축구를 이해하고 화합을 꾀할 수 있는 '명망가'를 가장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흥구 전 국무총리가 후임 회장 후보로 꼽힌다. 이전 총리는 2002 한일월드컵유치위원장을 맡아 정 회장에게 많은 도움을 줬다.

축구인 출신 회장에 대한 기대도 커 최근 기술위원장으로 복귀한 이회택 부회장과 조종연 부회장도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1960~70년대 한국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이름을 날렸던 이 부회장은 인지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나 행정경험은 다소 약하다.

조종연 부회장은 한일월드컵 실무책임자로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고 파

주 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 건립, 월드컵 4강 태극전사들의 군 문체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행정가로서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업무 추진과정에서 일부 반대파들의 견제를 받고 있다.

이밖에 자천타천 물망에 오르는 후보는 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 구단주를 맡고 있는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있다.

축구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고 정파적 색깔이 없다는 게 강점. 하지만 정몽준 회장과 친척관계인 것은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야권'에서 허승표 한국축구연구소 이사장과 안종복 인천 유니타이드 사장이 축구협회장 도전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전남 드래곤즈

새 단장 김영훈씨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가 10일 신임 단장으로 김영훈(49·사진)씨를 임명했다.

전남은 광양시와 광양제철소에서 추천을 받은 김영훈씨를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6대 단장으로 최종 낙점했다.

서울체육고 시절 태권도 국가대표 선비군으로 활동하기도 한 김영훈 신임 단장은 광양시 체육회 초대 사무국장 겸 이사, 부회장, 광양시의회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 11월(금)
▶PGA 존 디어 클래식 IR(04 : 00·SBS골프·SBS스포츠)
▶메이저리그(클로리다 : LA다저스)(11 : 00·XPORTS)
▶KBS배 체조대회(14 : 10·KBS1)
▶프로야구(두산 : 롯데)(18 : 00·KBS N SPORTS), <우리 : 한화>(18 : 20·X-SPORTS), <기아 : SK>(18 : 30·MBC ESPN), <삼성 : LG>(21 : 00·SBS스포츠)

Real estate advertisements for various agencies including Daehung, Sanggeon, Samwren, Daeji, Geom, A+, and Hanil. Each ad lists property details,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Hanil Land Development (주) featuring land parcels for sale in various areas like Gwangju, Jeonju, and Gwangju. Includes contact info and a list of services.